

**Fitch IBCA와 Moody's,  
우루과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**

□ Fitch IBCA와 Moody's, 우루과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

- 지난 7월 30일, Fitch社는 우루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을 B+에서 B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고, 전망치도 부정적(negative)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.
- 다음날인 7월 31일, Moody's社도 Ba2에서 B1로 한단계 하향 조정 한 지 20일만에, 우루과이 국가신용등급을 B3으로 두단계 하향 조정하고, 등급전망도 부정적을 유지한다고 발표함.
- 이로써,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금년 들어 우루과이 국가신용 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하였음.

<참고> 3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우루과이 신용등급 변화

S&P		Moody's		Fitch IBCA	
날짜	등급	날짜	등급	날짜	등급
2002년 2월	BBB-→BB+	2002년 7월	B1→B3	2002년 7월	B+→B
1997년 6월	BB+→BBB-	2002년 7월	Ba2→B1	2002년 5월	BB+→B+

자료: Bloomberg

- Fitch社와 Moody's社는 금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유로, 국내외 투자자들의 예금 대거 인출에 의한 외환보유고 감소를 가장 큰 원

인으로 지적하면서, 경기침체 지속, 폐소화 가치 폭락, 공공 부채 증가,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에 의한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함.

- 또한, Fitch社는 IMF, World Bank, I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예금인출 보충, 환율 방어 등에 사용할 경우, 국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.

#### □ 우루과이, 쏘은행 24시간 영업 중단 발표

- 7월 30일,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정부 관리 은행인 Banco de Caja와 Grupo Velox의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24시간 임시 휴업을 단행한다고 전격 발표하였음.
- 동 조치는 지난 3월 7억 달러의 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금융불안 양상 및 자국 폐소화 가치 폭락 현상이 거듭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예금 대거 인출 및 외화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고, 이에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됨.
- 실제로, 6월 이후 하루 평균 5천만 달러 이상의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, 2002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금의 33%가 인출되었고,
- 이로 인해, 2001년 12월까지 3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7월 30일 현재 7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으며, 폐소화의 가치 역시 1달러 당 35페소로 변동환율제 변경 이후 50%이상 하락하였음.

## □ 향후 전망

- 7월 30일 단행된 우루과이의 은행 영업 정지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예금동결화조치(corralito)처럼 장기화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지만, IMF, World Bank, I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확산을 우려하여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어, 금번 조치는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, 농업, 관광산업, 금융업에 경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경제소국 우루과이로서는,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 회복 없이는 당 산업들의 회복이 어려워, 당분간 동국의 경기후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전문연구원 최성규 (☎3779-6665)  
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